

'먹방' 과 '룩방' 을 넘어 식예능이 새로워지고 있다



푸드테라피부터 골목상권 살리기까지... 먹방과 룩방을 넘어 식예능이 새로워지고 있다. 음식을 소재로 다루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요리하는 행위에 더욱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먹방과 룩방의 생명을 연

장하고 식예능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 먹으면서 먹는 애기로 푸는 '푸드테라피'(Pick) 지난달 21일 첫 방송한 올리브 밥블레스유는 '맛있게 먹으면 0칼

로리'라는 명언을 남긴 최화정, 음식 완관녀로 급부상한 이영자, 미다스의 손 송은이, 예능 대세 김숙이 먹으면서 푸드 토크를 펼친다는 콘셉트로 눈길을 모았다. 한 번 밥을 먹으면 4차, 5차가 기본이라는 이들의 만남은 술한 먹방 프로그램의 흥수 속에서도 왜 이제

밥블레스유·수미네반찬·골목식당 등 음식 먹거나 요리하는 행위에 의미 부여

야?'라는 탄성이 나올 정도로 이복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밥블레스유'의 진짜 관전 포인트는 먹방이 아닌, 전국에서 배달된 '애매하고 사소한 생활 밀착형 고민'들이 있다. 언니들만의 방식으로 함께 공감하고 '맛충형 음식'으로 위로해주는 신개념 '푸드테라피'이 중심인 것. 20년지기들의 찰진 케미와 고민남녀의 사연을 쉽고 뜯고 맛보는 화끈한 입담은 먹방의 재미를 배가시킨다. 황인영 PD는 "밥은 우리를 먹고 사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소중한 창구다. 재밌는, 감정이 담긴 먹방을 하고 싶던 차에 네 언니(출연진)를 만나게 됐다. 시청자의 사소한 일상적인 고민을 모아 순간순간 어울리는 음식을 추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밥블레스유' 속 음식의 의미를 소개했다. ◇ 집집마다 다른, 정답 없는 레

시피 '엄마 손맛' tvN '수미네 반찬' 또한 새로운 매력으로 룩방에 불릴 법한 시청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김수미로 대표되는 엄마의 손맛은 기존 셰프 중심의 룩방과는 또 다른 레시피로 호기심을 자극했다. 조리법 전달이 기본적인 포맷이지만, 김수미가 지닌 고유한 개성이 실질적인 관전 포인트가 된다. 시청자들이 꼽는 '수미네 반찬'의 가장 큰 재미 요소는 김수미의 손맛을 따라잡으려 애쓰는 셰프들의 모습이다. 계량화된 레시피에 익숙한 셰프 여경래와 최현석이 평범한 집밥을 배우는 모습, '간은 삼삼하게, 당면 한줌', '종북로 세월이 약북로'네알아 등 김수미식 계량법에 찢찢 매는 외국인 셰프 미카엘, 그리고 이들을 취향파악하는 여장부 김수미의 조화다.

◇ 진심과 노력 + 백대표 노하우 = 골목상권 부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도 방송만 하면 출연한 식당이 화제에 오른다. 죽어가는 골목을 살리고,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담은 '거리 심폐소생 프로젝트'를 표방하는 이 프로그램은 앞서 전각 각지의 맛집을 소개하는 '3대 천왕'과 창업인들에게 장사 필살기를 '푸드트럭'을 거쳐 3년 변신으로 자체 진화했다. 기존의 식예능 트렌드에 맞춘다면 골목의 숨은 맛집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위기에 처한 골목의 식당을 돕는 반전 콘셉트다. 백종원은 출연진에게 대박 레시피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의 기본 마인드와 재료 보관법, 손님 응대 요령 등에 이르기까지 진심 어린 솔루션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성장해가는 식당의 모습이 맛을 중시하던 그간의 식예능과는 또 다른 재미를 주며 시청자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폭소보다는 미소, '시골경찰3'에는 흐뭇한 무언가가 있다

사실 MBC 예브리엔 '시골경찰'은 어딘지 소소한 느낌이 있다. 경찰이라고 하면 먼저 떠올리는 게 갖가지 사건 사고 현장의 긴박함일 것이다.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 방영되기도 했던 경찰을 소재로 한 리얼리티 쇼가 그러했듯이 말이다. 물론 나름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시골경찰'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경험했던 그런 긴박감을 주지는 않는다. 이런 소소함은 '시골경찰'이 관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다. 그것은 긴장감 넘치는 범죄 현상이 아니라 경찰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네 소소한 일상들과의 접점이다. 그냥 '경찰'이 아닌 '시

골'이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이 단 이유가 그것이다. '시골경찰'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리얼리티쇼가 가진 다채와 예능 사이에서 보다 예능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준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울릉도편은 확실히 '시골경찰'이 보여줄 수 있는 재미와 의미를 다양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특별했다고 보인다. 먼저 울릉도라는 특별한 섬이 가진 풍경이 그렇다. 그저 순찰 중 바라만 봐도 이색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섬. '울릉울릉 순찰길'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도로가 구불구불한 지형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저 멀리 보이는 섬과 바다의 모습이 가슴을 설레게 해서 그렇기도 하다는 걸 이

번 울릉도편은 보여줬다. 경찰의 시선으로 바라본 울릉도의 지역 특색이 드러나는 대목도 새롭게 느껴진다. 이 곳의 특산물인 명이나물을 뿌리째 뽑아 가는 '불법 채취 단속'에도 나서는 장면이나, 비가 내리자 순찰 중 도로 곳곳에서 보인 낙석들은 울릉도가 아니면 보기 힘든 장면들이었다. 또 늦게 야간자율학습을 끝내고 돌아오는 학생을 잡기 안전하게 귀가시켜주는 과정을 통해 그 곳에 고등학교가 단 하나뿐이고,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모두 동창이라는 사실도 세삼스럽게 다가온다. 이런 점들은 여타의 무수한 여행 예능들이 보여주던 지역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준다. 거기에 경찰이라는 지역 주민을 돕고 보



호하는 따뜻한 시선이 들어가 있어서다. 이번 울릉도편은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폭도까지 찾아갈 수 있게 된 행운도 따랐다. 폭도에 발을 디딘 시골경찰들은 그 곳의 신비로운 풍

광과 그 곳에서 일하는 폭도 경비대, 또 유일한 주민까지 만나며 벽안 감정에 빠지기도 했다. 그것 역시 관광객의 시선이 아니라 경찰의 시선으로 들여다봤다는 게 이 프로그램이 여타의 여행 예능과는 다르

게 다가온 이유였다. 잠시나마 폭도 경비대의 일원이 됨으로써, 그들 역시 그 먼 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들에게 느끼는 감사함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줬다. '시골경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지역에서 실제로 일하는 경찰들과의 교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번에 울릉도에서 찾이간 북면 파출소에서는 사람 좋아 보이는 소장님과 은근히 시골경찰들을 챙겨주는 춘래래 경찰들과 단 며칠 사이에 돈독해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근무를 마치고 헤어지는 그 이별의 순간이 아쉽게 다가오는 건 그래서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건 지금껏 시즌을 이어오고 있는 출연자들의 훈훈한 매력이다. '시골경찰'은 굉장한 웃음을 전해주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또 프로그램의 성격상 그래서라도 안 된다. 그 시골에서 일하는 경찰들과 함께 하는 것이니 그 진지함이랄까 그 분들에게 대한 예의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골경찰'이 주는 웃음은 폭소가 아닌 미소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훈훈함에서 피어나오는 미소. 만행으로서도 또 아이의 아버지로써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현지인들에게 누구보다 먼저 다가갈 손을 잡아주는 신현준이나, 묵묵히 진짜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성실함을 보여주는 이정진, 까불대면서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신현준과 아웅다웅하는 브로맨스를 보여주는 오대환 그리고 새로 막내로 들어와 그 누구보다 섬세하게 경찰로서의 임무에 솔선수범한 이청아까지. 생각해보면 그 누구를 떠올려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아쉬운 시즌 종료에 시즌4가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이유다.

'여름 한 조각' 러블리즈, 청순들의 취향저격 썸머송



걸그룹 러블리즈가 '여름 한 조각'으로 7월의 시작을 알렸다.

러블리즈는 1일 정오 스페셜 디지털 싱글 '여름 한 조각'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지난달 28일 Mnet 음악 프로그램 '열린음악터'에서 이례적으로 '여름 한 조각' 무대를 최초 공개한 러블리즈는 이날 '여름 한 조각' 정식 발매와 함께 상생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4월 미니 4집 타이틀곡 '그날의 너'로 활동했던 러블리즈는 3개월 만에 데뷔 후 첫 여름 시즌송으로 컴백했다. 사랑에 빠진 감정을 뽐낸 언 열음에 비유한 '여름 한 조각'은 러블리즈의 새로운 매력을 잘 보여준다. 러블리즈는 유

쾌하고 즐거운 음악도 제대로 소화했다. 매 앨범 분명했던 킬링파트는 이번 신곡에도 '와그자'이라는 감쪽한 단어로 담겼다. 러블리즈는 뜨거운 현기증을 토로하다가 그 이유가 '너'라는 걸 찾아내고 "머리엔 운동 더 땀이야 뭐든 다 이루어질 것 같아. 네 맘속에서 놀고 싶어"라고 사랑스러운 감정을 이야기했다. 킨마다 눈빛을 조금씩 담거나, 상큼한 기억들을 예쁘게 잘라서 차갑게 얼려둔다는 동화 같은 설정이 '여름 한 조각'의 청량한 에너지를 배가시킨다. 러블리즈는 노래에

'썸보다는 뜨겁고 사랑을 말하긴 조금 이른 너와 나'의 특별한 관계를 시원하고 짜릿한 화법으로 풀어냈다. 매력적인 음색과 분명한 킬링파트 및 재치 있는 무대로 흥행 썸머송의 조건을 충족시킨 러블리즈는 7월 걸그룹 컴백 대전의 포문을 활짝 열었다. 러블리즈의 변신과 사랑스러운 정체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여름 한 조각' 무대는 이날 SBS 힙기요 로도 공개했다. 한편 러블리즈 멤버 진은 건강상의 문제로 '여름 한 조각' 활동에 불참 중이다.

이슈문 시즌3 종료에 시즌4가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이유다.

오늘의 운세 2018년 7월 2일 월요일 (음력 5월 19일)



▶**띠띠**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면 금전 이득이 생긴다. 르, 오, 비 성씨 모든 여건이 만족스럽다고 타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유대관계를 적절히 유지하라. 2, 8, 9월 생 애정은 두 갈래 길에서 방향하지 말고 한 길을 찾아가라.



▶**씨씨** 사람은 한 번 인연을 맺기도 힘들지만, 헤어지기도 힘들다. 그래서 갈등이 크겠다. 연하나 연상인 사람이 토끼, 닭, 쥐라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 그, 오, 성씨는 자신 있게 행하라. 1970년생 아내가 내조에 힘쓰면 남편이 하는 일은 대성한다.



▶**옹옹** 오, 비, 웃 성씨는 새로운 인연을 만난 데 만족하라. 고귀한 인생이다. 스스로 개척해 행복한 삶을 이루자. 2, 5, 10월 생 무슨 일이든 한계를 벗어나면 무순이 따른다. 과음을 삼가자.



▶**띠띠**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을 세웠으면 결말을 볼 인쇄심을 기르라. 세월은 멈추지 않으니 소심한 성격을 고치고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그, 오, 성씨는 분수에 넘치는 낭비를 줄이고, 계획 있게 생활하라. 돈 벌 기회가 영원히 따르는 것은 아니다.



▶**용용** 나를 사랑하고 믿는 자에게 내가 한 무책임한 언행으로 그는 좌절했을을 알라.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인 만큼 애써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5, 9, 10월 생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건강에 무리가 온다.



▶**뱀뱀** 1, 2, 12월 생 개방적이고 화려한 이성 교제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한 구설로 불행이 따른다. 공든 탑 무너질 수 있으니 매사 심사숙고하라. 1954년생 그, 비, 오 성씨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 내 것은 내가 확실히 지켜야 한다.



▶**말말**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아무리 호황이라도 뜻대로 이룰 수 없다. 철저히 계획하고, 관리하라. 1, 7, 8월 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처럼 시작은 요란하지만, 날이 갈수록 고전한다. 신중히 행동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양양** 주위에 시기하는 사람이 많다. 개척지 말고 소신 있게 한길로 전진하라. 성급한 성격만 항상 자제하면 사업이나 가정 모두 성과가 따른다. 물질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건강부터 추스르라. 오, 자, 표 성씨 남을 돕는 것은 좋으나 실속을 잃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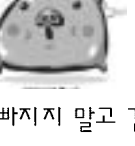
▶**원원** 현제만을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는 고초를 이겨내라. 곧 승천가를 부르는 기쁨의 날이 온다. 분수를 지키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조금함을 피하면 이익이 얻는다.



▶**조조**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라. 지금 힘겨워도 용기 있게 도전하면 목적을 성취한다. 길으로는 위태로우나 하늘이 정성에 감동하니 전화위복 시기가 온다. 7, 8, 9월 생은 마음을 최대한 즐겁게 갖고, 맡은 책임 다할 때 길하다.



▶**돼돼** 마음처럼 일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힘겨워도 하늘만 보고 한탄하지 말고 대책 마련에 힘쓰라. 1961년생 그, 웃, 오 성씨 주관을 잃고 방향하기 쉬울 때인 만큼 마음을 바로잡고 행동해야 한다. 2, 5, 11월 생 북쪽의 쥐, 닭, 소띠를 끝까지 믿고 임하라.



▶**황황** 1, 7, 8월 생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배운든지 실속 있는 일을 하라. 마음도 분주하고, 행동 또한 분주하니 이익은 많겠으나 쓸데없는 지출이 더 많다. 내가 최고라는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라. 가까이 있는 자가 나를 떠나려고 한다.